

## 패션에 나타난 解體主義 모드와 特性

- 先行研究를 中心으로 -

權 惠 淑

詳明大學校 디자인 大學 衣裳 디자인 專攻 教授\*

## The Mode and the Characteristics of Deconstructionism Expressed in Fashion Design

- Centering on Review of Literatures and precedent researches -

Kwon, Hae-Sook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ang Myung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and the mode of deconstructionism expressed in fashion design centering on review of literatures and precedent researches.

Through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and various articles, three major features with regard to deconstructionism were found: indeterminacy of meaning, decentralization, and inter-textuality.

In fashion, the feature of indeterminacy of meaning expressed by non formula way such as unfinished, layering, obi or straight line cutting and it was divided into unstructured and unorganized factors. The feature of decentralization expressed by disorganization of sex, race, culture and humanism such as trans-gender, third world costume, sub-culture, post-humanism. Last, the feature of inter-textuality expressed by employing the fashion texts more than two simultaneously such as mixture of unmatched or unusual various clothing items, fabrics, patterns and styles.

Non formality features in fahsion which divided into unstructured and unconstructed factors. The decentering of meaning means that disorganized the existing concepts of sex, race, culture and humanism features in fashion which divided into cross-gender, subculture, and post-humanism. Lastly, the feature of inter-textuality means that employed the fashion text more than two which is classified into factors of mixing mode and mixed styles.

---

Corresponding author: Kwon, Hae-Sook, Tel.+82-41-550-5201  
E-mail: kwon1004f@hanmail.net

Unstructured factors were expressed by destroying the design principles such as balance, harmony and unit in fashion. Unconstructed factors were expressed by ignoring the basic costume structures and components in fashion.

Cross-gender was expressed by manish and duality style in fashion and 3rd world costume was expressed by folk costume style. Anti fashion was expressed by anti aesthetics in fashion such as kitch, punk, and hippie styles. Post-human was expressed by futurism and the 4th Sex style in fashion.

Mixing mode were expressed by mixture of item, and unmatched materials and pattern in fashion. Mixture of style were expressed by mixture of pastiche expression of various styles.

**Key Words** : Deconstruction in fashion(패션에서의 해체), Inter-textuality(상호텍스트성), Indeterminacy of meaning(의미의 불확정성), Decentering(탈중심성)

## 1. 서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패션은 아방가르드한 예술가의 상상력과 감정을 바탕으로 한 예술로서의 기반이 다져지게 되고 이로부터 시대감각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패션 자체의 새로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아방가르드 디자이너들의 노력으로 과거와는 전적으로 다른 현대적 의미의 패션이 시작되었다.<sup>1)</sup> 20세기에 출현한 많은 아방가르드 디자이너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스타일은 패션 자체의 순수한 미를 추구한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아방가르드는 디자이너들의 획일적 방향에서 탈피한 사고와 영감의 공간 확장으로 인해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으며 문화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아방가르드는 양상이나 폭의 확대로서 예술 형식이나 양식에 있어서도 그 실험적인 경향이 개입됨을 보여주고 있다.<sup>2)</sup> 아방가르드 패션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는 기존의 미적, 도덕적 규범과 장르의 구별을 해체하는 해체주의적 성향이다.<sup>3)</sup>

해체주의 이론은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가 기존의 문학적 비평에서 있을 수 있는 고정된 해석을 깨뜨리고 텍스트의 의미들이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독해 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한 이론으로 80년대 이후부터 크게 유행하기 시작하여 현재 가장 유행하는 강력한 포스트 모던 움직임이다. 이 해체주의의 영향력은 현대 문화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영화, 록 비디오, 역사 교과서, 정치 캠페인, 이론적 혹은 종교적 이슈와 퍼포먼

스 아트, TV 광고 등등 모든 분야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해체주의는 기존의 부족중심주의, 다문화주의, 그리고 문화 전쟁의 근원이 되는 전통적인 가치들을 깨뜨리는 역할을 하였다.<sup>4)</sup>

기존의 기초적 토대(foundation)와 이성 중심의 서구적 사고로 인한 의미 부재에 대한 해체와 같은 비판적 시각을 가지게 해준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의 지각 시스템과 해체주의자들의 철학은 디자인과 패션 등의 분야에도 접목되어 기존하던 패션에서의 규칙과 관례를 파괴하였다.

패션에서의 해체주의라는 용어는 1989년 '디테일즈(Details)' 잡지에 빌 커닝햄(Bill Cunningham)에 의해 처음 취해졌으며, 1989년 10월 파리에서 선보인 마틴 마지엘라에 의한 '90년 봄을 위한 쏘'를 통하여 패션계에 본격적인 논의의 전환점이 마련되었다.<sup>5)</sup> 그러나 80년대에 이미 이세이 미야케와 콤데 가르송과 같은 일본 디자이너들은 서구 패션 디자인의 오랜 역사를 깨고 그들의 해체주의적 창조성으로 패션 세계에 혁명을 일으켰다.<sup>6)</sup> 아방가르드한 일본 디자이너들은 의복은 신체를 싸기 위한 것이라는 기존 관념을 해체시키는 파괴적인 이미지를 제시하는 옷을 제작하였고 이들이 제시한 형태가 없어 보이는 의복은 서구적 시각으로는 이상하고 보기 흉해 보이는 것이어서 언론의 비난을 받기도 하였으나 궁극적으로는 퍼트(fit)와 비율에 대한 서구적 시각에 변화를 일으키는 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아방가르드한 디자이너들은 지퍼와 솔기 등을 밖으로 배치하여 과거 안으로 숨겨 두었던 내부의 구조와 같은 부분

들을 밖으로 드러나게 하였고 또한 옷이 풀린 스타킹처럼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도 바람직한 양상으로 바꾸었다. 그들의 디자인 아이디어 단서(cues)를 해체주의와 미니멀리즘이라는 문학과 예술 사조로부터 채용해 오게 되었다.<sup>7)8)9)</sup>

이처럼 패션은 한 시대의 문화와 그 맥락을 같이 하며 동시에 한 시대의 미적 테마와 주요한 트렌드를 대변하며 한 시대의 요구를 파악하여 그것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가교자 역할을 해 왔다. 그러므로 패션을 통하여 한 시대의 문화적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미적 트렌드를 이해할 수도 있다.<sup>10)11)</sup>

지난 수년간 많은 연구자들이 패션과 해체주의 간의 상호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온 결과 이 분야에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다.<sup>12)13)14)15)116)17)18)19)20)</sup>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패션에 반영된 해체주의의 한 양상 또는 몇몇 특정 양상에만 초점을 두고 연구되어 왔으므로 패션에 나타난 전반적인 해체주의적 특성 및 각 양상에 따른 디자인의 특징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해체주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이러한 개념이 패션에 어떠한 모드와 디자인 상의 특성으로 표현되고 있는가를 그동안 진행된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들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해체주의의 개념이 패션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종합적인 분석을 제시해 봄으로써 해체주의 패션에 대한 이해를 보다 심도있고 체계적으로 가져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II. 해체주의 특성

포스트구조주의가 포스트모더니즘의 하부개념이라면 해체주의는 포스트구조주의의 하부개념이다. 좀더 정확히 말한다면 해체주의는 오직 포스트구조주의 일부에 해당할 뿐 결코 포스트구조주의와 동의어가 아니다. 즉 해체주의는 구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1960년대 후반에 등장한 후기 구조주의사상 중 하나로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이 푸코나 라캉 또는 리오타르 같은 이론가보다는 주로 자크 데리다와 관련한 이론으로 보는 편이 훨씬 더 적절하다.<sup>21)</sup>

1966년 10월 미국 존스 홉킨스(John's Hopkins) 대학에서 열렸던 '비평의 언어와 인문과학'이라는 주제의 국제 심포지움에서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인문학의 예술행위에 있어서의 구조와 기호, 그리고 유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sup>22)</sup> 이것은 플라톤 이래의 서구형 이상학과 구조주의에 대한 강력한 반기였고 해체주의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한 것이었다.<sup>23)</sup> 그는 니체의 몰이성적, 반이성적 영역을 찬성하면서 하이데거, 푸코의 계보를 이어받은 해체주의자로서 형이상학, 인과율의 개념, 동일성, 주제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 비판하였다.<sup>24)</sup> 즉, 데리다의 해체주의란 '현전(現前, Presence)의 형이상학'이라고 불리는 철학적 사유전통에 대한 강력한 비판으로 이항대립이나 이분법을 없애려는 시도에서 출발하였으며 주요 공격목표는 말과 글을 포함한 언어의 특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해석, 혹은 의미의 불확정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구조를 만들어 내어 텍스트를 분석하는 특성을 지니는 구조주의를 비판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비판을 통해 그동안 간과되었던 텍스트 주변의 의미를 끄집어내고자 했다. 데리다 철학의 두 가지 성과는 새로운 사유의 논리이론 개발과 텍스트이론이다.<sup>25)</sup> 새로운 사유의 논리이론의 개발로 데리다는 현전의 형이상학과 로고스중심주의 형이상학을 비판하면서 시작한다. 현전은 모든 개념들을 무엇이 근본적인 또는 중심인가, 근거나 권리로 취급되어온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는 철학적 시도 속에서 그 의미가 형성되었다고 본다.<sup>26)</sup>

그의 이론은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sup>27)28)</sup>

첫째, 중심(확정된 의미)의 현존과 부재이다. 이는 소쉬르<sup>29)</sup>의 언어학에서 기의는 기표들의 관계와 차이 때문에 형성되는 것, 즉, 하나의 기호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기의가 현존한다고 믿는 것이므로 기표의 의미는 기표들 사이의 관계와 차이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이나 데리다는 이러한 언어이론에서 모순점을 지적함으로써 중심의 현존을 부재로 만드는 것이다. 데리다는 기호가 무한히 반복되는 차이로 인해 다른 의미를 계속 생성하는 것으로 기호 그 자체에는 그 기호의 의미를 가능하게 하는 고정된 중

심이 자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이분법적 서열체계의 형성과 해체이다. 이것은 구조주의자들은 말보다는 언어체계, 개체보다는 전체, 작품의 외형보다는 작품을 지배하는 기본체계, 개인의 행동보다는 행동을 지배하는 문화체계를 중시함으로써 서열체계를 형성하나 데리다는 언어는 어떤 의미를 함유하는 것이 아니라 기호의 차이 때문에 의미를 지니므로 말과 글이 동등하다고 본다. 말이든 글이든 하나의 단어는 다른 요소와의 관계와 차이에 의해 의미를 생성하기 때문에 의미의 완전한 현존이란 없다. 결국 어떤 순간에 어떤 개념의 현존은 그 순간의 실재가 다른 순간의 부재에 의해 보충될 때에만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존은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부재를 소유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임으로 현존과 부재는 이항대립적 관계가 아니다. 데리다는 바로 현존의 이러한 속성, 즉 현존은 그것 아닌 다른 것에 의해 규정되어 진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구조주의의 이분법적 서열체계를 해체한 것이다.

셋째, 차연(differance)의 개념이다. 차연은 프랑스어 "differer"라는 동사는 차이와 연기의 의미를 지닌 신조어로 데리다는 이 단어를 이용하여 중심의 현존을 믿는 구조주의 이론을 해체한다. 그는 차연을 차이에 의한 실제 없음과 연기에 의한 의미의 유보로 설명한다. 이는 말하는 사람이나 글쓰는 사람이 의도하는 의미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지니기 때문에 기의의 완전한 현존을 부정하는 것이다. 연기는 기의의 직접적인 현존이 연기된다는 것이며, 기표와 다른 기표와의 관계에서 의미가 생성될 때 그 의미는 계속해서 연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체주의는 중심이 부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대체의 유희를 가능하게 한다. 차연은 기호의 의미를 유보하여 의미의 사라짐을 전제하고 흔적은 근원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와 더불어 데리다의 해체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론의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개의 용어 - 차연과 산중 -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차연은 기표(Signifiant)의 유희로써 소쉬르의 기호(말)는 기표(Signifier)와 기의(Signified), 관념을 결합한다고 말한 기호의 개념 즉, 언어에 있어 기호

(말)의 기원(말이 지시하는 대상)과 끝(의미)을 연결하는 동중으로 보는 것을 부정하고 단지 기호를 하나의 아무런 의미없는 코드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며 기호가 결합하고 있는 기의에 대한 문제를 새롭게 부각시킴으로써 구조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탈구조주의를 주장했다.<sup>30)</sup> 즉 언어가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의 상태를 알려준다는 믿음, 언어의 재현능력을 거부함으로써 기호를 객체로부터 해방시켜 해석에 직면한 오류도 진리도 기원도 없는 기호의 세계를 주장한다. 따라서 차연을 이용한 데리다의 새로운 사유논리개발에 의하여 로고스 중심주의 형이상학과 현전의 형이상학을 부정하면서 그 의미를 불확정성과 탈중심적인 의미까지 확대시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데리다는 새로운 텍스트의 철학적 해독원리를 제시한다. 텍스트는 여기저기 부유하는 특성을 지니기에 어떤 일정한 주제로 의미를 이끄는 역할을 부정한다. 또한 텍스트는 어떤 의미를 추구하면 다른 하나 이상의 의미가 생겨 의미의 일정지향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렇다고 해서 다의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무의미라고도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 오히려 텍스트는 의미와 무의미, 의미의 단수와 복수의 그런 재래적인 인식론적 테두리를 벗어나서 의미자체를 흩어버린다. 이것이 '산중(Dissemination)'이다.<sup>31)</sup> 산중이란 보충(Supplement)성의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은 이원론적 대립에서처럼 두 의미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 의미 사이의 구분을 지우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방식에서의 개념들은 어느 한 의미로 결정됨이 없이 결정불가능(또는 미결정성=Undecidability)한 흔적으로 해체되어져 그것들을 그들 자신 안에 스스로와는 다른 의미를 품게 된다. 예를 들면 기호의 의미는 기호와 다른 어떤 것이기에 그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호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의미는 모든 기표의 연쇄를 따라서 산중되어 있다. 왜냐하면 기의는 그것이 얽혀있는 다양한 기표의 연쇄에 의해서 변화되기 때문이다.<sup>32)</sup>

이와 같이 데리다는 산중과 차연이라는 신개념을 통해 텍스트를 해체하고 열린세계를 목표로 하였고, 텍스트의 내재적 의미를 차연이라는 의미의 유보과

정을 거쳐 차연의 유희로 만듦으로서 텍스트를 해체하여 의미의 산중에 의해 다해석이 가능한 열린 사고를 지향하였다. 또한 텍스트에 내재한 고정적 의미를 해체하기 위해 탈중심화, 상호 텍스트성, 그리고 불확정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열린 사회를 지향하였다.<sup>33)</sup> 즉, 데리다는 차연의 차이와 지연에 의한 의미의 불확정성, 탈중심 뿐만 아니라 한 단어 내에서의 산중을 통해 결정 불가능성을 논의하면서 구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포스트구조주의 입장에서 모든 표상적 언어로 이루어진 텍스트의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포함한 전존재성을 인정하며 종래의 형이상학적 철학이 전존재성을 부정하는 것을 부정하는 해체주의 이론을 성립시켰다.<sup>34)</sup>

이러한 선행연구와 문헌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데리다의 해체주의의 특징을 정리하면 데리다의 해체주의 이론의 중심 개념인 차연은 현전의 형이상학의 해체와 로고스 중심의 형이상학의 해체로 각각은 불확정성과 탈중심으로 반영되고 있고 산중은 이항 대립이나이분법적 형이상학의 해체로 나타나나 상호 텍스트성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불확정성(현전의 형이상학의 해체), 탈중심성(로고스 중심주의 형이상학 해체), 상호텍스트성(이분법적 형이상학의 해체)을 중심으로 이러한 개념들이 해체주의 복식의 표현양식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III. 해체주의 중심 개념과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개념별 표현양식

#### 1. 의미의 불확정성(Indeterminacy of Meaning)

불확정성이란 사고의 전달이나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사고를 기록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언어의 목적을 방해하고, 의미의 혼동이나 모호함을 의미한다.<sup>35)</sup> 이는 기호의 고정적 의미를 해체하면 기의는 고정된 인식의 태두리에서 벗어나 확산됨으로써 일관된 의미가 없이 불확정 상태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의미란 불확정적이며 미래에 새롭게 재해석될 수 있다는 불확정성의 원리를 띠고 있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개념이란 있을 수 없고 상대적인 개념에서 불완전하게나마 체계를 유지해 나가게 된다. 결국 불완전성이나 비결정성의 한계로 인한 의미의 모호성을 인정하고 그 의미들을 확산시키는 것이다.<sup>37)</sup>

해체패션에서 신체는 의복의 통합된 전체의 단정한 부분으로 간주되므로 신체에 의해 의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따라 선택적으로 형태가 결정된다. 이러한 개념은 인체의 형태와 무관한 급진적인 형태와 텍스처어를 양산하고 어떻게 입느냐가 착용자에게 달려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 때로 전혀 형태가 없는 의복이 가능할 수도 있고 커다란 하나의 직물 조각으로 되어 다양한 의복 연출이 가능한 의복일 수도 있다.<sup>38)</sup>

불확정성의 개념은 일정한 척도와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무한히 개방된 공간 구성에 의한 유연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불확정적 세계관을 지배하는 해체주의 복식에 나타난다.<sup>39)</sup> 즉, 의복은 구성을 통해서 인체와 외부 사이에 그리고 피복과 인체 사이의 공간을 형성하게 되는데 해체패션은 이러한 의복의 공간 개념을 열린 공간으로 해석함으로써 인체를 감싸는 형태로부터 탈피하여 오히려 인체를 드러내거나 구분된 공간으로 전향시키는 구성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sup>40)</sup>

복식에 나타나는 의미의 불확정성에 적용된 해체 전략의 표현기법은 선행연구<sup>41)42)43)44)45)</sup>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일정한 형식이 존재하지 않는 무(無)형식이나 복식의 기존 개념을 깨는 미완성의 표현기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표현기법은 착장방법에 있어서 상하의, 걸안감, 내외의, 탈착 등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체에 밀착하는 똑같은 완성상태를 지향하던 서구의 의복과는 달리 착용자에 의해 완성되는 미완성 상태인 동시에 불확정적으로 확장, 연출을 하게 된다.

해체주의적 성향을 지닌 일본의 아방가르드 디자인들은 매기, 두르기, 걸치기, 강기 등의 기법을 응용한 비구조적인 양식을 창조하고 착용자의 의상 연출에 의해 형태가 완성되는 미완성의 열린 의복을 제시하였다.<sup>46)</sup> 또한 그들은 동양의 미적 개념인 비

대칭 선의 사용과 의복이나 신체의 형태와는 무관한 혹은 때로는 전혀 상반되도록 의복을 구성하는 드레이핑 방식과 구성법, 그리고 미완성의 의복 디자인 아이디어 등으로 서양과 동양, 패션과 안티 패션, 그리고 현대적인 것과 비 현대적인 것에 대한 경계를 무너뜨림으로 해서 그들의 디자인을 독보적인 것으로 창출해 내었다.<sup>47)48)</sup> 이러한 디자인들에 사용되는 직선적인 선들과 복식의 착용으로 완결되는 잠재적인 형태인 오비와 직선재단, 레이어링 방식 등은 인체 위에 착용된 후 그 진정한 형태가 결정될 수 있음으로 착용자가 그 형태를 창조해 낼 수 있는 의미의 불확정성을 표현한다.

이처럼 불확정성은 복식에서의 구조와 구성의 고정 관념이나 정해진 디자인 원리의 파괴나 무시 등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 2. 탈중심성(Decentring)

데리다에 의하면, 모든 서구의 사고는 근원, 진리, 이상적 형태, 고정 관념, 신, 현존 등 모든 의미를 항상 주도하고 보장하는 중심의 사고(idea of a center)에 기초한다.<sup>49)</sup> 해체주의는 일한 기존의 전통적 가치관, 가설, 아이디어, 그리고 사상과 신념 등을 형성하는 구조를 해체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sup>50)</sup> 즉,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어떤 권위나 중심적인 힘인 로고스를 중심으로 삼는 로고스 중심주의에 기대는 서구 문화의 모든 사고 체계에 '형이상학적'이라는 낙인을 찍고 어떤 식이건 절대적 근원을 증명하려는 모든 철학적 시도는 하나같이 사막의 신기루처럼 부질없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어떤 절대 근원이나 기초가 되는 중심적 체계와 통일성의 원리를 해체하려고 하는데서 그의 해체론이 출발한 것이었다.<sup>51)</sup>

데리다가 해체하려고 했던 기존의 중심주의는 여러 가지 의미로 역사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예컨대 그것은 서양중심주의, 말중심주의, 소리중심주의, 남자중심주의, 남근중심주의, 정신주의, 물질주의, 현존중심주의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된다.<sup>52)</sup>

이와 같은 탈 중심성의 개념은 복식에서는 종래의 이성적 기준이 되었던 남성 중심의 성, 백인종 위주의 인종개념, 고급 문화와 대중 문화와의 차별, 인

간중심주의 등과 같은 중심에 있는 것들을 해체시키기에 대한 부정적인 논리로 내적으로는 억압되고 소외되어왔던 것 즉, 여성, 유색인, 제 3세계 문화양식, 초인간주의 등의 비주류문화 혹은 하위문화 등이 국제적 보편주의에서 탈피하여 의상에서 표현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3.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상호텍스트성이란 텍스트의 의미를 다른 텍스트에 의해 형성시키는 것으로 다른 이전의 텍스트에서 빌려와 변환시키거나 하나의 텍스트를 다른 것을 읽는데 관련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용어는 서로 다른 텍스트간에 존재하는 텍스트 간의 상호관계로 정의될 수 있다.<sup>53)54)</sup> 이것은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텍스트가 서로 비교되거나 대조될 때 두드러지는 현상 혹은 현상들이다.<sup>55)</sup>

복식에 있어 텍스트란 용어의 사용은 의복을 하나의 텍스트로 보고 기호학의 대상화하는 것 이상의 의미로서, 패션이 독자적인 기호 체계로 스스로의 역사를 가지게 됨에 따라 패션 텍스트 자체를 인용하거나 특정한 표현방식을 근거로 삼는 경향으로 볼 수 있다. 즉 패션에서의 텍스트란 작게는 스타일, 이미지, 아이템, 소재 등을 의미한다.<sup>56)</sup> 이러한 텍스트는 자율적으로 존재가 불가능하므로 패션 텍스트 안에서의 상호텍스트성도 주어진 어느 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맺고 있는 상호관계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복식에 있어서 상호텍스트성은 복식 자체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다른 텍스트 즉, 상대의 성, 지위, 나이, 예술 더 나아가서는 T.P.O 모두를 인용하여 패션과 비패션의 경계선에서 병행으로 전환되고 다 해석 가능성으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 아이템, 착장 방식, 소재 등에 대한 기존의 사회 규범으로서의 이분법적 표현 방식을 해체하여 타자를 수용하는 열린 사고로 제시된다.<sup>57)</sup>

선행연구<sup>58)59)60)61)</sup>에서는 성, T(Time), P(Place), O(Occasion), 소재, 아이템 또는 코디네이션의 상호텍스트성으로 나누어진다고 보았고 진경옥(2001)<sup>62)</sup>은 상호텍스트성은 패러디를 환기시키는데 다시 말

해 인용, 참고, 차용의 패러디 기법은 상호텍스트성 안에서 시간적으로는 과거와 현재를 연관시키며 동시에 그 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상호텍스트성은 개념상으로는 다소 포괄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그 적용 범위를 T.P.O를 무시한 의복 아이템이나 소재의 사용 혹은 혼합, 서로 상이한 아이템의 조합 혹은 혼합, 서로 어울리지 않거나 소재 및 문양의 혼재 등과 같은 양식의 혼재와 다양한 디자인 아이디어 소오스를 복합적으로 사용한 디자인이나 다양한 이미지, 스타일의 혼합 등 스타일의 혼재의 두가지 유형의 상호텍스트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한정하였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해체주의 개념이 복식에는 어떠한 의미로 표현되고 있으며 어떠한 표현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 IV.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개념별 표현 유형과 유형별 특성

이 부분에서는 <표 1>에 나타난 해체주의의 개념이 복식에 어떠한 표현 유형과 디자인상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가를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불정확성 - 무(無)형식

복식에 있어서의 해체주의는 혼합된 무(無)양식의

양식을 해체해 나가는 과정으로 무형식의 표현기법은 미완성 표현이나 비완성 등의 표현으로 나타나 있으며 디자인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비구조적인 표현기법과 비구성적인 표현기법으로 나누었고 유형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 1) 비구조적인 표현기법

이것은 중심의 부재, 공간의 개방성을 중시하는 디자인을 분류한 것으로 중심의 부재란, 의복을 구성하는 중심요소와 관습적 구성을 탈피하여 자유로운 사고에 의한 새로운 구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sup>63)</sup> 이런 기법은 디자인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균형, 비례, 강조, 리듬, 조화를 파괴하는 것으로 현대 복식에서 파괴적 표현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가치의 반대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과도한 비대칭적 사선의 앞여밈 또는 부분적 확대나 과장으로 인한 지나친 비대칭 강조표현, 착장 모습에 있어서 특이한 구조, 소매나 칼라 등 그 기능을 잃어버린 형태 등으로 정상적인 균형의 파괴 등으로 나타난다.<sup>64)</sup>

이러한 성향은 기존의 의복 디자인 원리에 입각한 의복 구조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체하여 과도한 비대칭 구조의 사용이나 의복의 무게나 균형을 파괴하는 과도한 디테일이나 장식의 사용 등을 통한 불균형과 부조화의 감각을 지닌 디자인으로 나타날 것이다.

##### 2) 비구성적인 표현기법

이것은 거주할 수 없는 공간, 입을 수 없는 옷도 순수한 옷의 형태라고 함으로써 의복의 기능성, 목

<표 1> 복식에 표현된 해체주의 개념과 복식에서의 의미 및 표현 유형

해체이론의 개념	복식에서의 의미	복식의 표현 유형
불정확성	무(無)형식	복식 구조의 파괴 복식의 구성의 파괴
탈중심	성 · 인종 · 문화 · 인간주의 해체	성의 교차 표현 제3세계 양식표현 안티 패션 표현 탈인간주의 표현
상호 텍스트성	두 가지 이상의 패션 텍스트를 인용	모드의 혼성 양식의 혼재

적론을 해체시키고 형태를 무너뜨리거나 심지어는 형태를 무시하고 봉제하지 않는 의복, 봉제를 극소화한 의복, 심지어 안감 또는 다리미 처리도 없이 만드는 비구형적 의복처럼 의복의 갖춰야 할 기본적인 형태를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정확성의 개념은 입는 사람에게 따라 다르게 완성될 수 있는 불확정적 열린 형태를 추구하는 레이어링 현상에서 두드러진다.<sup>65)</sup> 또한 오비의 묶는 작업을 통해 진정한 형태가 부여되며 복식의 진실한 의미가 완성되는 기모노는 착용자의 인체형에 따라 실루엣이 변하게 되므로, 그리고 소재의 선택과 인체에 입혀지는 행위를 통해 새로운 형을 창조하는 직선적인 재단법은 2차원적 소재를 가지고 3차원의 인체에 착용됨으로써 완결된 미를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불확정성의 원리에 해당될 수 있다.<sup>66)67)</sup>

그러므로 이러한 양상은 안의 슬기가 밖으로 드러나 있거나 나올이 풀린 햄라인 등 완성되지 않은 의복의 형태, 기존의 다트선이 비상식적인 위치로 이동해 있거나 아예 사라진 의복, 과학적인 패턴 구성을 통하기 보다는 천을 인체에 자유롭게 돌려 만들어진 듯한 의복 그리고 일정한 틀 속에서 정형적인 형태로 완성되어 있지 않고 끈이나 확장된 의복의 일부로 착용자가 자유로이 의복의 최종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의복 등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 2. 탈중심성 - 성·인종·문화·인간주의 해체

### 1) 성의 교차적 표현

성역할은 사회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법칙과 규정에 의해 정해지며 의복은 다른 사람들이 개개인의 생물학적 성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주요한 심볼이 된다.<sup>68)</sup> 이러한 성역할에 따른 의복 패러다임은 현대에 이르러는 폐지되고 모든 여성의 의상 품목에는 팬츠가 포함되었고 여성과 남성 의상은 병합되어졌고, 특별히 남성 슈트에 영향을 받은 여성의 의상에는 더욱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sup>69)</sup>

성의 복합적 표현은 인간의 성에서 생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말살함으로써 의복과 외모에서 성적으로 특징적인 아이템을 혼합하거나 약화시킴으로써, 소외되고 억

압된 것을 부각시켜 총체적인 중심주의를 해체시키고 있다.<sup>70)</sup> 또한 서구의 이성중심주의 철학이 남성 우월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므로복식의 상징적 계층성을 해체하여 복식에서의 성적인 차별을 해체하는 개념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현대는 남성복과 여성복의 한계선의 붕괴로 남성복에도 스커트와 여성적 디자인 양식이 두드러지고 여성의 속옷이 남성의 겉옷에 적용되고 있으며 여성은 남성의 내의를 이브닝드레스로 입거나 남성성기의 과시적 표현 형태를 여성의 하의에서 여성성기의 과시로 바꾸어 입기에 이르고 있다.<sup>71)</sup>

이러한 성개념의 변화는 매니쉬 룩의 보편화와 더불어 남성과 여성의 성구분이 아닌 인간자체의 통합적 이미지로써 중성적인 성향을 선호하여 유니섹스 룩이나 남.녀의 성적 상징을 모두 보이는 앤드로지니어스 룩, 커다란 의미에서는 두 개념을 포함한 듀얼리즘 스타일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 2) 제 3세계 양식표현

20세기 전반기 서구의 문화는 소외된 것과 타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획일적인 국제적 보편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기존의 백인 중심의 보수적 사고에서 유색인종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 그리고 휴머니즘의 고양 등으로 유색인종 끌어안기를 통해서 글로벌리즘이란 양식으로 움직여 갔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해체를 주장하는 데리다의 해체론과의 접목에서 차연의 또 다른 수용양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패션에서 에스닉, 원시적, 그리고 자연주의적 표현으로 이끌어졌다.<sup>72)73)</sup> 아울러 민족지학적, 토착적 지방성으로 제 3세계의 문화나 오지의 원시 부족 또는 흑인의 요소들을 혼합한 이국적, 원시적 또는 자연적인 표현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 3) 안티 패션

역사적으로 패션 시스템은 계급제도로 이해되어 왔고 이러한 시스템의 속성은 중심이 되는 창조적 힘인 파리 패션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컨텍스트에서 파리는 스트리트 패션, 하위문화, 그리고 이민자들의 문화와 같은 다양한 근원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보다 서민적인 패션으로 그 힘을 이양하게 되었다.<sup>74)</sup>

하위 문화 집단은 문화와 행위 그리고 신념 등을 공유하는 집단의 사람으로 그들이 속한 다수의 문화권과는 차별화가 된다. 이 집단의 멤버십은 패션과 매너리즘 그리고 은어 등을 포함한 그들의 독특하고 상징적인 스타일의 사용을 통하여 나타낸다.<sup>75)</sup> 하위 문화 스타일은 본질적으로 지배문화에 대한 언어적, 행동적 항변을 하는 소수계층의 표시였고 그들에게 있어서 의복은 중요한 가시적 언어였다.<sup>76)</sup> 하위문화 패션은 자발성과 믿을 수 없을 만한 상상력에 의한 무한한 다양성으로 인하여 패션 디자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77)</sup> 예를 들어, 70년대 후반의 안티 패션인 펑크는 해체주의적 패션의 초기 표현 방식으로 상스러운 행위와 더불어 조악한 취향과 반심미적 성향을 반영한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던의 중요한 구성요소이었으며 현대 패션 디자이너들의 작품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sup>78)79)</sup> 또한 흑인 음악과 크로스 오버 음악의 유행과 더불어 모즈과 루드 보이와 같은 특정한 하위 문화집단의 스타일은 1980년대 초반의 캐주얼에 영향을 주었다.<sup>80)</sup>

하나의 사회적 저항의 이탈과 불만의 표출로 등장한 모즈, 스킨 헤드, 펑크, 데드, 히파 등의 하위문화 스타일은 기존의 패션 중심 세력이 기득권에서 소수자에게로의 이양이라는 탈중심화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하위문화 스타일에서 많이 보여지는 트임주기(Slashing)와 구멍내기, 비우기, 잘라내기(Cutting) 등의 방법이나 옷감을 불규칙으로 아무렇게 주름을 고정시킴으로써 구김의 효과를 낸다거나 혹은 옷감의 손상하기(Spoiling), 흉내기(Scarring), 찢기(Ripping) 등은 기존의 패션을 평가하는 심미적 기준과는 차이가 있는 '추의 미(美)' 혹은 안티 패션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의 미는 기존의 스타일을 비속하게 모방하는 열등한 예술을 분류할 때 사용되는 용어인 키치와 더불어 지금까지 아름다움 추구라는 미의식에서 탈중심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sup>81)82)</sup> 키치표현은 첫째, 여백의 공간을 남기지 않고 모두 장식하여 채워 버리며 특히, 장식근로로 과도하게 장식하거나 색채나 문양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둘째, 환상적 낭만, 성적 유희, 유아적·만화적 유치 이미지 등과 같은 태도로 나타나며 특히, 성본능의 자유

로운 신체의 노출, 인체강조, 자극적 소재나 선정적인 장식은 포스트모던 문화 안에서 에로티시즘의 강조의 형태로 나타난다. 셋째, 키치 오브제를 사용한 키치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키치 오브제란 그 자체로서 키치인 것으로 여기에는 모조품, 기성품, 낡은 골동품, 폐품 그리고 비예술적이거나 일상적인 소재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소재들을 사용하여 외모의 더러움에 감춰진 진실을 승화시키는 가난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도 있다.<sup>83)84)</sup>

이처럼 안티 패션은 아름다움이 강조된 기존의 패션 개념과 가치관을 깨는 거칠고 허름하며 낡고 저지분하기까지 한 그리고 때론 공포스럽거나 추하다고 평가되었던 디자인의 요소들이 반영된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 4) 포스트 휴머니즘(탈인간주의)

포스트 휴머니즘은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의 주요한 유럽 대륙의 철학으로, 이것은 르네상스 인본주의 시대의 이미지들과 아이디어를 넘어서 테크노 과학적 지식의 21세기 개념에 보다 가깝게 반응할 수 있도록 움직여가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sup>85)</sup> 오늘날 인공지능과 인터페이스를 결합한 새로운 인지 도구인 나노테크놀러지(Nanotechnology)가 인간의 생물학적 반응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신체의 불완전성을 일소하기 위한 더할 나위없는 조건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인식론적 패러다임이자 행동 강령은 '포스트 휴머니즘' 혹은 '탈인간주의'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sup>86)</sup>

해체패션에 있어서 기존 인간중심의 패션에서 해체된 이러한 포스트 휴머니즘적 표현은 우주시대가 개막되었던 1960대에 소개되어 최근에도 미래의 테크놀러지를 현재에 차용하여 표현되고 있다. 즉 신소재나 금속, 광택소재 등을 이용한 우주 또는 스페이스 이미지의 미래지향적 의상들이 발표되어 정상적인 지각의 체계를 뒤엎음으로써 새로움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경향은 사이보그 즉, 제4의 성에 대해서까지 언급되고 있는데 사이보그는 인공두뇌의 유기체이며 기계와 유기체의 잡종교배이고 사회적 실재임과 동시에 허구의 산물로 인간과 기계, 인간과 동물,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의 일탈이

자 경계의 융합이다.<sup>87)</sup>

이러한 성향은 인간을 인간 형태 자체로 표현하기 보다는 사이보그나 동·식물, 혹은 그 밖의 다른 유기체의 이미지나 형태 등으로 표현하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 3. 상호 텍스트성 - 두 가지 이상의 패션 텍스트를 인용

#### 1) 모드의 혼성

포스트 모던 시대 동안 시각 문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양상들 중 하나는 드레스 코드와 스타일의 분해와 재조립이다.<sup>88)</sup> 과거에 고정되어진 어울리는 옷에 대한 개념에 대한 새로운 시도로 기존의 감각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것끼리의 혼합 즉, 다양한 복식 아이템을 해체시키는 표현으로 나타난다.<sup>89)</sup> 의복에서 계절에 따른 규범이 무시되고 의복의 착장순서가 뒤바뀌진다. 즉 활동복과 잠옷, 작업복과 일상복, 포멀과 스포티, 캐주얼과 드레시, 내의와 외의, 상의와 하의라는 커다란 아이템 구분뿐만이 아니라 스커트, 자켓, 조끼 등과 같은 세부 품목에 있어서도 서로 혼재되고 목적이 다른 상반된 복종을 병행 인용함으로써 기존 사회규범으로서의 정상적 표현방법을 무너뜨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매치된 토탈 코디네이션의 조화를 거부하며 최대한의 자유와 융통성을 시도한다.<sup>90)</sup>

그리고 해체주의 패션에서 속옷과 겉옷에 대한 개념재고는 인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의복과 환경의 중간역할을 해온 비밀스런 속옷이 겉옷과 구분되는 것은 인간의 문명이 만들어낸 규범일 뿐으로 불변의 법칙이 아니라는 제안을 한다고 볼 수 있다.<sup>91)</sup>

현대의 신소재개발과 사교의 변화, 개성의 표현 등으로 소재사용에 있어 어울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반된 소재를 병행 인용하여 다양한 표현을 시도하며 나아가 소재 자체의 경계를 허물어 복식 관념의 경계선을 없애고 있다. 소재를 결합할 때도 이질적인 소재의 결합 즉, 하드한 소재와 소프트한 소재, 원시소재와 하이테크소재 등을 조합하여 극단적 대비를 통한 상호절충적인 면을 나타낸다.<sup>92)</sup> 이러한

경향은 문양에 있어서도 나타나 서로 어울리기 어려운 상반된 느낌의 문양 즉, 전통문양과 기하학적 문양, 작은 크기의 문양과 큰 크기의 문양, 플로랄 문양의 여성적 문양과 스트라이프 문양의 남성적 문양 등을 믹스 매치하여 표현된다고 볼 수 있다.

#### 2) 스타일의 혼재

스타일의 다원성은 현대 사회에 융해되어 있는 다양한 문화적 영향의 상호 텍스트성을 나타내고 있다.<sup>93)</sup> 패션에서는 과거의 룩으로부터 끊임없이 영감을 가져온다. 어떤 디자이너들은 역사적인 소오스를 해석하고, 분석하여 재창조하여 옛것과 새 것을 새로운 가시적 형태로 재조합하기도 한다.<sup>94)</sup> 이처럼 패션은 과거에 대한 향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넘어서는 영원한 현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바라 빈켄(Barbara Vinken)<sup>95)</sup>의 말처럼 1980년대 이후의 패션경향은 이전의 시대와는 달리 단순히 과거의 모방보다는 과거를 이용하여 더욱 새롭게 발전, 재생, 혼성시켜 역사성을 뒤집고 현대에 맞도록 마음대로 차용된다. 그러므로 순수한 의미의 복고성이 아니라 비역사적 혼성모방, 오리지널에 대한 전복적 패러디라 할 수 있으며 바꾸어 말해 그 부분적 요소를 임의로 조립하고 절충하여 과거와 현재의 매혹적인 병렬관계를 나타내는 패러디적인 패션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혼성모방은 비단 역사적 요소의 것뿐만 아니라 민속적 요소, 복고적 요소, 스타일과 이미지의 다양한 혼재,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양식들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조금 넓은 의미의 다양한 양식의 혼재로 볼 수 있다.

## V. 요약 및 논의

앞의 연구 내용들을 종합, 정리하여 해체주의 개념과 복식에 표현된 유형별 특성을 복식에 표현된 양식과 디자인의 특성 그리고 표현 기법 및 방식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체주의에서의 부정확성의 개념은 복식에서는 무형식의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었는데, 이것

은 크게 비구조적 의복 형태와 비구성적 의복 형태로 표현되고 있었다.

비구조적 의복이란 디자인의 원리인 균형, 비례, 리듬, 조화 등의 기존 개념을 파괴하는 비구조적인 디자인 상의 특성으로 표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표현 기법과 방식을 살펴보면, 과도한 비대칭적 사선의 여밈 및 네크라인, 스커트 햄라인의 비대칭 또는 부분적 확장, 의복의 부분적 확대나 과장 또는 길이연장, 의복의 전체적 확대 및 축소, 레이스·리플·루프 다발 등의 과잉장식, 이질적 오브제의 확대 및 부착, 2중 또는 3중 허리선 등으로 표현되었다.

비구성적 의복은 의복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형태 및 구성방식을 벗어난 것으로 표현된 것으로 예를 들면 여밈 처리가 없이 평면의 천을 인체에 두르거나 매거나 걸쳐서 착용, 소매가 없거나 소매의 기능을 슬릿으로 대신, 구성선에 관계없이 동글게 도려냄, 의복의 부분삭제, 봉제가 완성되지 않고 조각조각 연결, 기본 구성선의 생략 또는 특이한 구성선 등의 표현방식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탈중심성의 개념은 기존의 중심이 되어왔던 성, 인종, 문화, 인간주의 등의 해체로 복식에 서는 성의 교차적 표현, 제 3 세계 복식, 안티 패션 그리고 포스트 휴먼등의 양식으로 나타났다.

남성 중심에서 탈피된 성의 교차적 복식 표현 방식은 매니쉬 스타일이나 듀얼리즘적 표현으로, 매니쉬한 표현은 남성 전유물로 여겨지던 바지나 남성복 자켓 스타일을 여성복 스타일에 채용한다거나 남성 정장용 스타일인 맨디룩이나 말러터리 룩 등을 여성복으로 변환시키는 등의 특성으로 표현되었다. 듀얼리즘적 표현 방식은 유니섹스, 앤드로지니어스, 또는 섹스리스의 스타일로 나타나 있었는데, 구체적인 표현기법을 살펴보면, 생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적요소를 철저히 말살하거나, 소년·소녀 이미지를 동시에 지니는 의복형태, 남성복에서 스커트와 여성적 디자인양식 또는 여성의 속옷이 적용, 여성복에서 남성의 내의를 이브닝드레스로 입거나 남성성기의 과시적 표현형태의 사용 등이었다.

민속적 요소를 반영한 복식의 표현으로 나타난 제 3세계 복식의 양식은 민속적 특유의 요소를 복식에

접목하거나, 이국적 표현, 오리엔탈적 요소의 표출, 또는 원시적이거나 자연적, 토속적 표현 기법이나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안티 패션의 양식은 하위 문화 스타일이나 키치 등이 반영되어 표현되었다. 장신구를 과도하게 장식하거나 색채나 문양의 과도한 사용, 신체의 과도하거나 비상식적 노출이나 인체부분의 강조, 자극적 소재나 선정적 장식, 모조품·기성품·낡은 골동품·폐품의 비예술적이고 일상적 소재 사용하는 키치적 표현이 디자인상의 두드러진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간 위주의 기존 사고 개념의 해체로 탈인간적인 복식의 표현양식으로 나타났는데, 스페이스 룩이나 테크놀러지 등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지향하는 미래적 이미지를 지닌 디자인상의 특성이 반영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과 기계, 인간과 동물, 물질과 비물질의 혼합 등에 의한 새로운 개념의 초인간 표현 방식을 창조하는 기법 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셋째, 해체주의 개념의 상호 텍스트성은 두 가지 이상의 패션텍스트를 인용하는 양식의 표현으로 혼성 모드와 양식의 혼재라고 명명된 두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믹싱 모드는 속옷의 겹옷화, 활동복과 잠옷, 작업복과 일상복, 포멀과 스포티 아이템, 캐주얼과 드레시한 아이템의 혼합 등의 방식으로 표현되는 아이템의 혼재 방식과, 착상순서의 파괴, 목적이 다른 상반된 복종을 병행인용하드와 소프트, 원시 소재와 하이테크 소재 또는 전통 문양과 기하학적 문양 등의 상반된 소재와 문양의 결합되는 이질적인 소재 또는 문양의 혼합 등의 디자인적 특성을 지닌 표현으로 나타났다.

복식에 양식이 혼재된 양식으로 표현된 해체주의 개념은 서로 다른 스타일이나 이미지, 또는 아이디어 소스 등을 혼성 모방하여 잡종성을 제시하는 디자인적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혼성모방의 표현기법은 민속풍의 요소나 복고풍의 요소를 아이디어 소스로 사용하여 새롭게 재해석 하거나 또는 서로 다른 스타일, 이미지 등을 복합적으로 혼합하여 사용하는 기법이나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패션은 끊임없이 사회, 문화적 현

상과 관련되어 영향을 받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여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 시대의 문화적 현상의 올바른 이해는 시대적 패션 트렌드의 흐름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방향을 읽을 수 있는 바이로메타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노정심(1994), "아방가르드 패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41
- 2) 송정선·박옥미(2003).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현상",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9(4), p.67
- 3) 노정심(1994).Op.cit., p.41
- 4) Crouse,B.(2003). Deconstructionism: The Postmodern Cult of Hermes. 검색일 6. 11, 2005 자료출처 <http://www.christianinformation.org/article.asp?artID=73>
- 5) 해체주의에 대하여(2007). 검색일 2006, 11.2, 자료출처: <http://www.sunslife.com/bbs/zboard>.
- 6) Tokyo Fashion. 검색일 2007.9.2 자료출처: [http://ikjeld.com/features/fashion/frame\\_stub.html](http://ikjeld.com/features/fashion/frame_stub.html)
- 7) Fashion Eras, 1800-2000. 검색일 2005.6.11. 자료출처 [http://www.fashion-era.com/fashion\\_eras.htm](http://www.fashion-era.com/fashion_eras.htm)
- 8) 해체주의에 대하여(2007).Op.cit.
- 9) Fashion. 검색일 2006.12.11 자료출처: [http://encarta.msn.com/encyclopedia\\_761585452\\_4/Fashion.html](http://encarta.msn.com/encyclopedia_761585452_4/Fashion.html)
- 10) 김혜정(2003). Op.cit., P.271.
- 11) 엄혜정(1998).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작품세계와 미적 특성". 복식, 37.p.71
- 12) 경한주(1996). "현대복식에 적용된 해체주의적 표현방법".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13) 김민자(1998)."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 1". 복식, 37 권, PP.103-118.
- 14) 김민자(1998)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 2. 복식, 38 권,PP.369-392.
- 15) 김아진·도규희(1999). "해체주의 조형성에 따른 패션디자인의 연구". 경일대학교 논문집, PP. 1623-1632.
- 16) 김주영(1995). "현대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7) 김주현·권미정·이순자(1999). "현대 복식 디자인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표현과 그 수용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7(4), PP.80-94.
- 18) 이영재(1998). "패션에 나타난 페미니즘의 포스트모던 현상 연구". 동명정보대학교 생활과학연구논집, 18(1),PP.107-121.
- 19) 김혜정(2003). Op.cit., PP.271-280.
- 20) 노정심(1994). Op.cit.
- 21) 김옥동(1998), "전환기의 비평논리", 현암사, p.84
- 22) 정용교(1991), "구성주의와 해체주의 건축의 비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53
- 23) 양세은(1993), "해체주의 관점에서 보는 조형언어적 개념과 실내환경 디자인에의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p.49
- 24) 마단 사럽 등저(1991), "데리다와 푸코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임헌규 역, 인간사랑, p.58
- 25) 이수인(1999), "현대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표현양식", 복식문화연구, 제7권 제6호, p.944
- 26) 김옥동(1998), Op.cit., p.100
- 27) 김정호(1992), "hamlet의 전략: 해체적 "글읽기"". 영어영문학, 38(1), pp. 189-206. 검색일, 2006년 10월 2일. 출처 :[http://search.koreanstudies.net/Search/Result\\_View.asp?srcCate=%B1%B9%B3%BB%C7%D0%C8%B8%C1%F6&a\\_key=1601#](http://search.koreanstudies.net/Search/Result_View.asp?srcCate=%B1%B9%B3%BB%C7%D0%C8%B8%C1%F6&a_key=1601#)
- 28) 장경렬(1992). 데리다와 해체구성 검색일, 2006.9.12. 자료출처 [report.empas.com/report/view.hcam?no=4588730&PHPSESSID=bcdc0ff298a587dda9d1e92cd0533682-38k](http://report.empas.com/report/view.hcam?no=4588730&PHPSESSID=bcdc0ff298a587dda9d1e92cd0533682-38k)
- 29) 소쉬르(F. Saussure)는 스위스의 언어학자로서 그의 일반 언어학 강의는 구조주의 사상적 기원

- 으로 간주되며 오늘날 과학적 언어학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30) 이태동(1990), “데리다와 해체주의”, 서강영문학, 2권, p.4
  - 31) 경한주(1996), Op.cit., p.13
  - 32) 장경숙(1992), “자꼬 데리다의 해체이론”,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51
  - 33) 김성곤(1991)‘탈구조주의의 이해“. 민음사, 이영재(1998). “패션에 나타난 페미니즘의 포스트모던 현상 연구”. 동명정보대학교 생활과학연구논집. 18(1),P.172에서 재인용.
  - 34) 김성곤(1990), “탈모더니즘 시대의 미국문학”, 서울대학교출판부, pp.87-88
  - 35) 김옥동(1998), Op.cit., p.108
  - 36) Xinxian Zhuo(2004). "Locke on Language", US-China Foreign Language, 2(4-serial No7), 검색일 10.15. 2007, 자료출처 <http://www.linguist.org.cn/doc/uc200404/uc20040402.doc>
  - 37) 조말희(1996), 「현대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0-11
  - 38) Kawamura,Yuniwa(2004). "The Japanese Revolution in Paris Fashion", Retrieved Oct 27, 2007, 자료출처 <http://www.throughthesurface.com/symposium/kawamura.html>
  - 39) 이지윤(1994), 「해체주의 공간의 구성원리 및 디자인 특성과 조형적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p.14
  - 40) 김아진·도규희(1999). “해체주의 조형성에 따른 패션디자인의 연구”, 경일대학교 논문집,p.8
  - 41) 김주영(1995), Op.cit.
  - 42) 이영재(1998), Op.cit.
  - 43) 김주현·권미정·이순자(1999). Op.cit.
  - 44) 김은실·배수정(2000), Op.cit.
  - 45) 원선영(2000), Op.cit.
  - 46) 김은실·배수정(2000), Op.cit.
  - 47) Kawamura,Yuniwa(2004). "The Japanese Revolution in Paris Fashion", 검색일 10.27, 2007 자료출처 <http://www.throughthesurface.com/symposium/kawamura.html>
  - 48) The Mode Breakers(2006),검색일 10.27,2007 자료출처 <http://www.lacma.org/art/ModelIndex.aspx>
  - 49) Boje,David M.(2001). "Jacques Derrida", 검색일 9. 27, 2007 자료출처 [http://business.nmsu.edu/~dboje/teaching/503/derrida\\_links.html](http://business.nmsu.edu/~dboje/teaching/503/derrida_links.html)
  - 50) Deconstruction(2007), Wikipedia, 검색일 11. 5, 2007 자료출처 <http://en.wikipedia.org/wiki/Deconstruction>
  - 51) 김옥동(1998),Op.cit., p.107
  - 52) 김형효(1997). "데리다의 해체철학", 민음사, p.16
  - 53) Irwin, William(2004). "Against Intertextuality". Philosophy and Literature, 28(2), pp. 227-242. 검색일 9.5, 2007, 자료출처 <http://en.wikipedia.org/wiki/Intertextuality>
  - 54) Intertextuality, Dictionary, MSN Encarta, 검색일 10.17, 2007 자료출처 [http://encarta.msn.com/dictionary\\_1861739562/intertextuality.html](http://encarta.msn.com/dictionary_1861739562/intertextuality.html)
  - 55) Smith, Ben C(2006). "Textual excavation", 검색일 9.15, 2007 자료출처<http://www.textexcavation.com/textualexcavation.html>
  - 56) 진경옥(2001), 「패러디를 응용한 현대 패션디자인의 조형성」,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62
  - 57) 최영옥(2000). 장 폴 고티에 작품에 나타난 해체주의(I)-상호텍스성을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3, p.219.
  - 58) 김주영(1995). Op.cit. 정은주(1995), 이영재(1998), 김아진·도규희(1999), 원선영(2000)
  - 59) 이영재(1998).Op.cit.
  - 60) 김아진·도규희(1999). Op.cit.
  - 61) 원선영(2000). Op.cit.
  - 62) 진경옥(2001),Op.cit.0.162.
  - 63) 김아진·도규희(1999). Op.cit., p.6
  - 64) 원선영(2000). Op.cit., p.24
  - 65) 이영재(1998), Op.cit., p.116
  - 66) 문화출판국(편)(1979), “복식사전”, 동경문화출판국, p.113
  - 67) 김주영(1995). Op.cit... p.103
  - 68) Kawamura,Yuniwa(2004). Op.cit.
  - 69) Siddiqui, Reema. " From Catwalk to Sidewalk

- Postmodern Fashion", 검색일 10.11,2007 자료출처, [gcu.edu.pk/RaviPDF/From%20Catwalk%20to%20Sidewalk%20-%20Postmodern%20Fashion.pdf](http://gcu.edu.pk/RaviPDF/From%20Catwalk%20to%20Sidewalk%20-%20Postmodern%20Fashion.pdf)
- 70) 이영재(1998), Ibid., p.113
- 71) 정은주(1995), 「현대 복식 디자인의 해체주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37
- 72) 정은주(1995). "현대 복식 디자인의 해체주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43
- 73) 임주영(1995). "현대패션에 표현된 해체주의",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86
- 74) McAdam, Anita. Fashion as identity in action: Skaters, Casuals, B-Boys and Fly-Girls, 검색일 10.11,2007,자료출처 <http://www.aber.ac.uk/~jmcwww/Identact/Papers/paper23.doc>.
- 75) "Subculture",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검색일 10. 11, 2007 자료출처 <http://en.wikipedia.org/wiki/Subculture>
- 76) Alison Lurie(1982)."The language of clothes: the definitive guide to people watching through the ages", William Heinemann, 김민자, "2차대전 후 영국 청소년 하위문화 스타일", 한국의류학회지, 11권 2호, 1987, p.81에서 재인용
- 77) Stoykov, Lubomir(2006). "Fashion and subculture", 검색일 10. 11, 2007 자료출처[http://www.bgfashion.net/news/fashion\\_and\\_subculture.php](http://www.bgfashion.net/news/fashion_and_subculture.php)
- 78) The Mode Breakers(2006). Op.cit.
- 79) Stoykov, Lubomir(2006). Op.cit..
- 80) McAdam, Anita, Op.cit.
- 81) 정혜경 · 박연희(2001). "패션의 이해", 경남대학교출판부, pp.176-177
- 82) 김아진 · 도규희(1999). Op.cit., p.7
- 83) Abraham Moles(1996), "키치란 무엇인가", 시각과 언어, p.9
- 84) 김경옥(1998), "현대패션에 표현된 키치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85) Posthumanis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검색일 9.5, 2007 자료출처 <http://en.wikipedia.org/wiki/Posthumanism>
- 86) 김지훈 외, Op.cit., p.219
- 87) 임수정(2003),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패션의 여성 이미지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p.82
- 88) "Costly Compensations: Postmodern Fashion, Politics, Identity". 검색일 9.5, 2007 자료출처 <http://faculty-staff.ou.edu/L/Vincent.B.Leitch-1/article3.html>
- 89) 정은주(1995). Op.cit., p.44
- 90) 김성복(1994), "패션디자인과 해체주의", 한성대학교 논문집, p.501
- 91) Op.cit., p.500
- 92) 원선영(2000). Op.cit., p.30
- 93) McAdam, Anita. Op.cit.
- 94) The Mode Breakers(2006). Op.cit.
- 95) Cerda Buxbaum(1999). "Icons of Fashion", New York, London: Prestel, p.166

(2007년 7월 12일 접수, 2007년 9월 28일 채택)